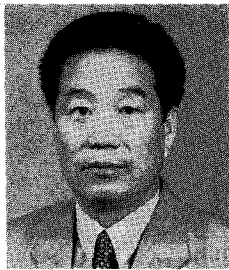


문과 위원장에 듣는다(중계·부외)

## 산학연의 협력을 통한 인프라 구축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



이 언 증

(본회 종계부화분과위원장/신영농장 대표)

**설** 레임과 기대속에 맞이했던 새천년 경진년(庚辰年) 한해를 아쉬움만 남기고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여명의 2001년 신사년(辛巳年) 새해를 조심스럽게 맞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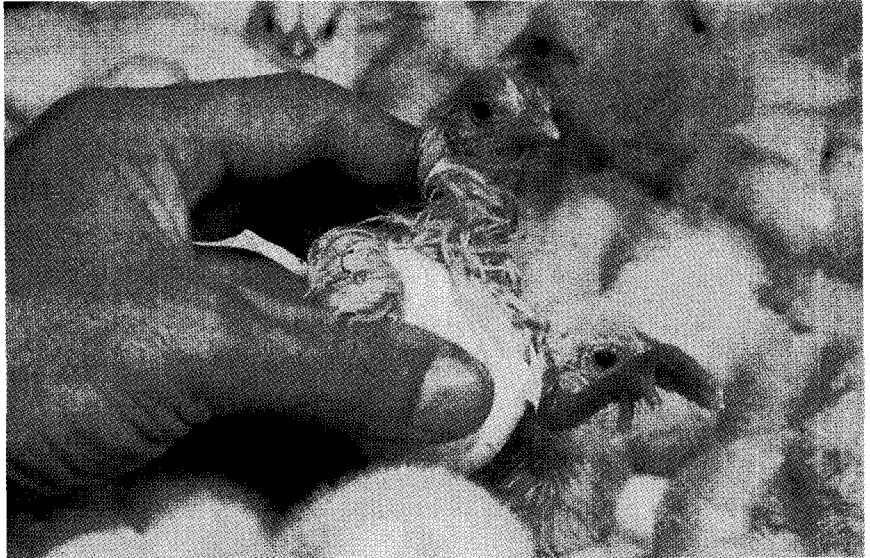
돌이켜 보면 부풀었던 새천년도 잠깐, 수급 불균형이란 악재속에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뛰지 않으면 안되었던 한해가 아니었나 싶다. 물론 예측을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불밀듯이 밀려오는 수입 닭고기는 시장을 여지없이 뒤 흔들어 왔고 중국의 가금류 수입 중단 해제 조치는 혹독한 대륙풍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 바 크다. 이렇듯 주변 상황은 시시각각 많은 변화와 새로운 각오를 더욱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4월 갑작스런 구제역 파동은 소, 돼지

피해 못지 않게 노계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았으며 정체된 노계로 인해 생산과잉을 유발시켜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보기도 했다. 또한 유럽을 쉽슬고 있는 광우병은 국제 대두박 품귀현상으로 이어져 사료값 인상과 함께 새해 벽두부터 원가 인상 요인으로 말미암아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경제사정 또한 구조조정 실패로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환율상승은 원자재 구입난을 가중시켜 대량실업사태를 초래해 시장경제를 침체시켰으며, 소비위축으로 가뜩이나 설자리를 잃어가는 우리 양계인들을 혹독한 겨울 거리로 내몰아 붙이는 실정이다. 정부는 어떠한가. 형편성 없는 살처분 보상 규정으로 인하여 양계인들에게 실망을 줬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뉴캐슬 근절 강화 대책 자체를 허구로 만드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본다. 70~80년대만 해도 양계는 국가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였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수입자유화 물결속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엄청난 출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체계적이지 못한 정책 부재로 인해 지금은 헤어날 수 없는 이중의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참담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이제라도 좀 늦은 감은 있되

만 보존 육성할 수 있는 치밀한 정책 수립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즉, HACCP를 중점 관리하여 닭고기의 공영화를 실현하고, 닭고기에 대한 철저한 검역 및 검사기능을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화, 농장단계에서의 방역 및 위생수준 향상과 출하



차량에 대한 세부 규칙 준수 등을 지도하여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양계산업이 발전할 수 있으리라 본다. 소비자가 원하는 위생 닭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선 우리 또한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생산성이 최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것보다 양적인 방만한 경영을 해온 것도 경영부실을 가져온 원인 중의 하나이다. 구조조정이 무엇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생산성 향상일 것이다.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불필요한 군살을 빼야 한다. 그리고 신선한 피를 수혈받아야 한다. 기술 자본 집약적인 계사, 자동화 시설 생산기술을 통한 안정적 사육기반조성과 원활한 공급체계화가 이루어질 때만이 최고의 상품과 최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를 위해 산학연이 협력하여 새로운 인프라를 구성 공동체를 기초로 상호 의존적인 공생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그 어느해 보다는 2000년도는 산학연이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진 해가 아니었나 싶다. 축산 신문사 주체로 유성 리베라 호텔에서의 삼계(백세미) 심포지움을 시발로 해서 가축위생지원 방역 본부 발족, 대일 닭고기 수출 대책 협의 구성, 대전 기술연구소의 품종개량 실험 그리고 김정주 건대 교수의 수입닭고기 유통경로 조사 연구 등 많은 산학연이 분주하게 양계산업을 위해 노력한 한해 임에는 틀림없다.

정부도 늦게나마 3년여를 끌면서 양 협회가 합의 도출한 백세미 관련 합의문을 계열업체에 통보함으로써 정부의 의지를 조금이나마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결과는 더 신중히 지켜 볼 일이지만 질병 근절 방역 대책이란 큰 틀 속에서 집중적인 관리를 해주기 바라며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는 바이다. 지금은 분열보다는 화합이 더 절실한 시기이다. 이제는 책임전가나 내뱉 챙기기를 해서는 절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조금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또한 자조금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양계인의 큰 과제이며, 그동안 수년에 걸쳐 자조금 사업을 해오면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추진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양계인은 혼혈일체가 되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는 바이다.

그리고 일부 업체가 자조금의 중요성만을 강조한 채 힘의 논리를 내세워 양계업계를 채란과 육계로 양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천만번 위험한 발상이며, 이 시점에서 기업의 속성보다는 진실한 양계업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말이다.

자조금의 목적은 분명 공생공영에 뜻을 두고 있다. 특히, 비생산단체가 현실을 왜곡해서야 되겠는가! 우리는 이에 적극적이고 단

호하게 대처해 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종계·부화에 한 마디만 더 하고 이 글을 맺을까 한다. 지금 계열화업체에서는 병아리 내부 거래 구체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을 볼 때 우리나라도 불원간 계열 생산이 90% 이상 육박하리라 본다. 시장경제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쟁체제가 고도화속에서 경쟁력을 잃는다는 것은 포기요, 더 나아가서는 죽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최선의 방어는 최대의 노력밖에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소비자가 없는 시장은 있을 수 없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끝으로 지난 한해 여러모로 도와준 종계 부화업에 종사하시는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01 신사년 한해는 지난해에 이루지 못한 꿈 꼭 성취하시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양계

깨끗하게 청소하여 질병에서 해방되자!

# 자동화 계사 청소대행

- 원적외선 산업 (맥반석, 건운모)
- 중추이송 케이지 주문제작

## 동 광 공 업

대표 : 최 성 태

사무실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전화 : (055)374-8461~2, 팩스 : (055)375-8461

휴대폰 : 011-374-8461~2